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그래프/분석)-세계 증시 앞에 놓인 과속 방지턱 시사하는 '매도' 신호
 - ◇ (초점)-주가 과열 신호에도 전문가들 "과격 한 조정 가능성 작아"
 - ◇ (초점)-거래소, RFR 선물 내년 하반기 상장 준비..CD 선물 전철 피할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마가렛 키난이라는 90 세 여성이 세계 첫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로 기록됐다. 이 여성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받았다. (공동취재단 제이콥 킹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월11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090.3	-0.8%	6.1%	-3.5%	유로	1.2111	-0.1%	8.0%	-2.3%
100엔 대비	1,049.3	-0.8%	1.2%	-4.4%	엔	104.01	0.1%	4.4%	0.9%
유로 대비	1,322.1	-0.6%	-2.1%	-1.3%	위안	6.5459	-0.1%	6.4%	-1.3%
위안 대비	166.72	-0.5%	-0.6%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30,046.37	-0.6%	5.3%	22.3%
코스피	2,770.06	1.4%	26.0%	7.7%	나스닥	12,377.87	-0.7%	38.0%	35.2%
코스닥	928.44	1.6%	38.6%	-0.9%	S&P500	3,663.46	-1.0%	13.4%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644.51	0.4%	16.6%	15.8%
국고채 3Y	0.980%	1.4bp	-38.0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307%	-1.6bp	-17.3bp	-40.4bp	미국채 2Y	0.121%	-3.2bp	-144.0bp	-93.7bp
국고채10Y	1.661%	0.6bp	-2.2bp	-26.5bp	미국채 10Y	0.896%	-7.6bp	-101.4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6.57	0.7%	-23.7%	34.5%	한국 5Y	21.1bp	1.2bp	0.0bp	-17.0bp
금(현물)	1,839.03	0.1%	21.2%	18.3%	일본 5Y	14.0bp	-0.2bp	-3.7bp	-4.0bp
TR상품지수	2,674.94	0.1%	7.6%	4.8%	중국 5Y	29.5bp	1.4bp	-1.2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2월 14일(월)>

- 금감원, 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2020년 하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12:00)

<15일(화)>

- 한은, 10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금투협·거래소, 「코스피 최고치 경신,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토론회(13:30)
- 기재부, 정책 현안 점검회의(14:00)

<16일(수)>

- 한은: 2020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부총리 녹실회의(07:45)
- 통계청: 2020년 11월 고용동향(08:00)
-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현황 및 대응방안(12:00)
-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2021년도 목표 초과수익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의결 등)(배포시)

<17일(목)>

- 기재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14:00)
- 한은,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16:00)
- 한은·통계청·금감원,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18일(금)>

- 기재부, 12월 최근경제동향(10:00)
- 한은, 11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2월 14일(월)>

- 일본, 4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지수 (08:50)
- 중국, 11월 주택가격 (10:30)
- 일본, 10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10월 산업생산 (19:00)

<15일(화)>

-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16일)
- 호주중앙은행(RBA) 12월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공개 (09:30)
- 중국, 11월 도시지역 고정자산 투자·소매판매 (11:00)
- 미국, 12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1월 수입·수출물가 (22:30)
- 미국, 11월 산업생산 (23:15)

<16일(수)>

- 일본, 11월 수출·수입·무역수지 (08:50)
- 일본, 12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09:30)
- 유로존, 12월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1:00)
- 미국, 11월 소매판매 (22:30)
- 미국, 12월 마켓 PMI 잠정치 (23:45)
- 미국, 10월 기업채고·소매채고 수정치 (자정)
-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자정)

<17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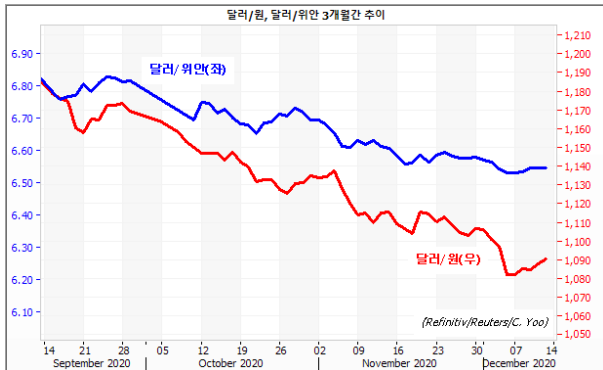
- 미국, 연방준비제도 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04:00)
-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18일)
- 영국, 영란은행 금리 결정 발표·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21:00)
- 미국, 11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2: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2:30)
- 미국, 12월 필라델피아연은 지수 (22:30)

<18일(금)>

- 일본, 11월 CPI (08:30)
-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
-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18:00)
- 미국, 3분기 경상수지 (22:3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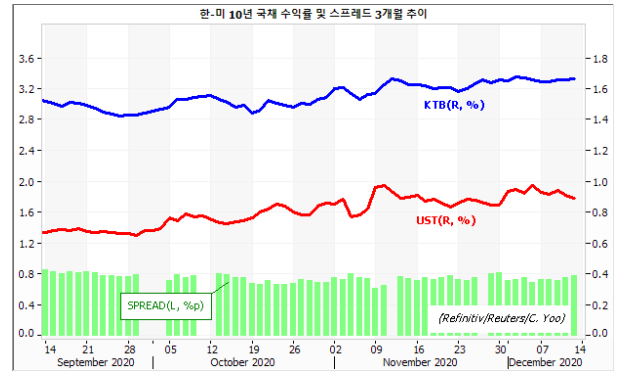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매 동향에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080-1100 원이다.
- 국내 코로나 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천명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그간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들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 지난 주말까지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외국인들은 2.3조원을 팔아치웠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1080 원대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1090 원대로 반등했다.
- 원화가 이번 주에도 이같은 흐름을 지속할지 주목된다. 그렇다면 달러/원 환율은 1080 원대에서 레인지 하단이 형성될 수도 있겠다.
- 한동안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과 환율이 서로 보폭을 맞춰왔던 만큼 국내 코로나 19 상황을 해석하는 외국인 행보 따라 환율은 변동성을 키울 수도 있어 보인다.
- 한편, 이번 주중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 정책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 관심은 작지 않다.
- 한편 15일에는 중국 11월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등 주요 실물지표가 발표된다.
- 달러/위안이 최근 6.5 위안대에서 하단을 다지는 흐름을 보이고, 이같은 움직임이 달러/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중국 주요 실물지표 결과가 주목된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 후폭풍, 국채선물 월물 교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기획재정부가 지난 주말 발표한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2~3y 단기채 비중은 30±5%(2년물 8~9%), 5~10y 중기채 비중을 40±5%, 20y 이상 장기채 발행 비중은 30±5%로 결정했다.
- 올해와 비교해 볼 때 5년물, 20년물 등이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 발행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고채 발행계획 발표 이후에도 장기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 FOMC 회의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연준이 이번에 장기물 매입 비중을 늘리는 추가 유동성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고공행진하는 주가와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과열 움직임 속에 연준이 기름을 끼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모습이다.
- 연준이 이번에 추가 유동성 완화 조치를 내놓기 보다는 원론적인 의지를 설파하는 데 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 주초 국채선물 만기까지는 시장이 큰 변화 없이 움직이겠지만 국채선물 만기 이후부터는 내년 전망을 반영하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프/분석)-세계 증시 앞에 놓인 과속방지턱 시사하는 '매도' 신호

런던 (로이터) - 지난 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세계 증시는 12 월에도 강세를 보이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강세로 인해 주요 투자 은행들은 일부 '매도' 신호를 포착했고, 상승세가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이 진전된 이후 소액 투자자 서베이에서부터 파생상품 포지션에 이르기까지 이런 신호들은 일부 주요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가 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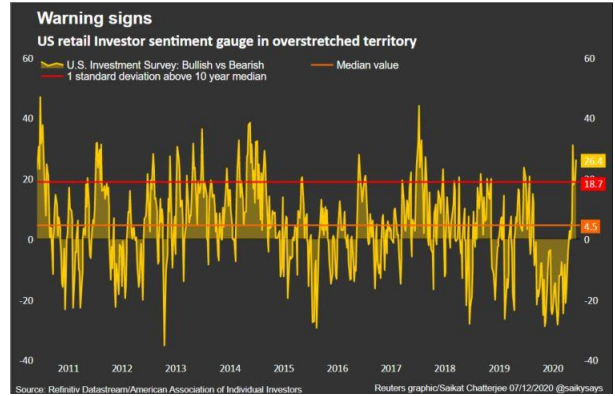
EPFR 데이터는 지난 4 주간 주식 펀드들에 1,150 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자금이 투입됐음을 보여줬다. S&P500 지수는 1 개월 동안 13% 올랐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 600 은 동기간 15% 올랐다.

여러 은행들은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너무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내년 코로나 19 백신에 따른 경기 회복세가 가져올 투자릿수 수익률에 비하면 작은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고객들에게 미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를 들어 "단기내 증시 하락의 위험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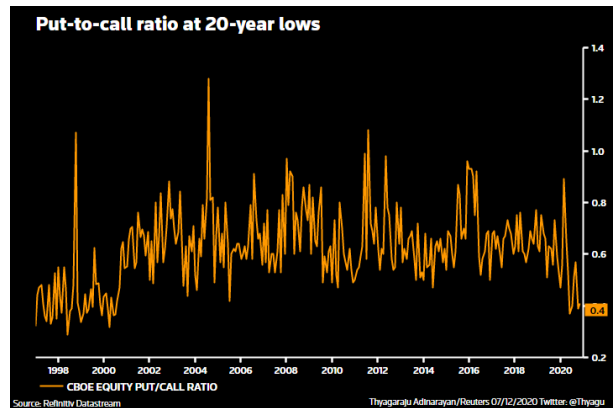
다음은 투자자들이 증시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5 개의 차트이다.

전미 개인투자자협회(AAII)가 최근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투자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역방향 시그널인데, 이 지수는 근 3년래 최고치 부근을 가리키고 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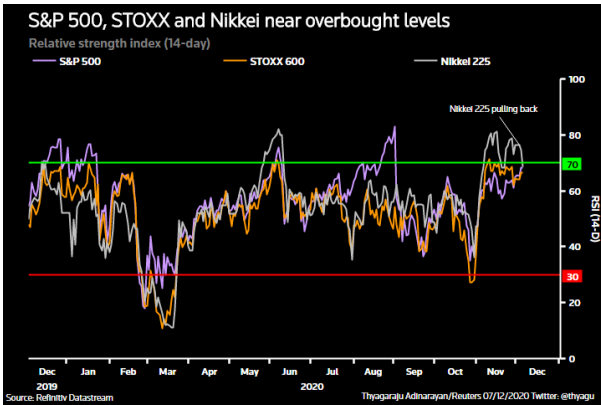
옵션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 CBOE 풋-콜 비율은 20년래 최저치로 낮아졌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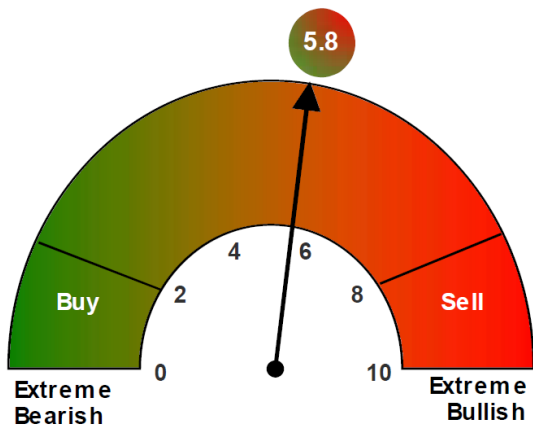
S&P500 지수와 스톡스 600 지수도 과매수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들 지수의 상대강도지수(RSI)는 70 부근으로, 차익실현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11 월 과매수 영역에 들어섰고 이후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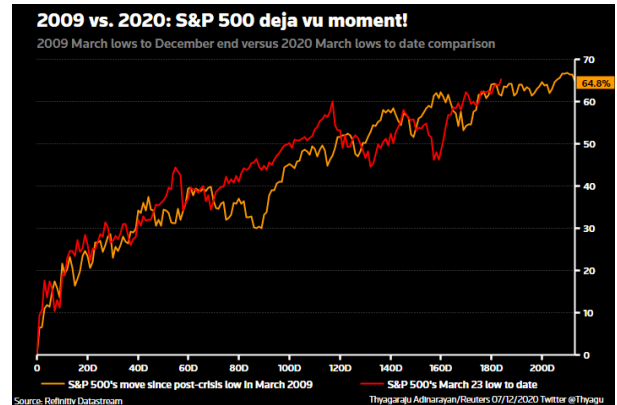
지난 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불 앤 베어 지수'가 4.7에서 5.8로 올라 '매우 낙관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말했다. 지난 여름 이 지수는 매우 비관적임을 의미하는 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다.



Source: BofA Global Investment Strategy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S&P500 지수는 3월 중순 저점에서 약 65% 상승했는데, 지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 바닥을 친 이후 8개월간의 성과에 견줄만 하다. 낙관론자들은 지수가 2020년까지 랠리를 계속 끌고왔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줄 것이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주가 과열 신호에도 전문가들 "과격하 조정 가능성 작아"

서울 (로이터) 이지훈 기자 - 코스피가 단기간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갈아치우며 폭등한 가운데 몇몇 기술적 지표가 과열을 가리키지만, 시장 분석가들은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매수 여력이 커 과격하 조정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외국인이 7년여 만의 최대 월간 순매수를 기록한 가운데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14% 이상 폭등했고,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가 10일까지 벌써 6%나 상승했다. 지난 6주일 사이 코스피가 하락한 것은 6거래일에 불과하다.

코스피는 미국 대통령 선거라는 불확실성 해소, 그 이후 진행된 달러 약세 본격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개발 성공, 내년 경기 급반등 전망 등에 세계 위험자산 가격이 초강세 행진을 이어가는 것에 발맞춰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 규제 강화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쏠린 현상과 함께 반도체 업황이 특히 밝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다. 심지어 11월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개인들의 '빚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 기술적 과열 신호에 경고성 발언도 나와

코스피가 백신 기대와 경기 회복 기대 등 현실보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단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가수익배율 등 기술적 분석 지표들은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의 배율(PER)은 현재 12.9배까지 높아져 지난 5년 평균인 10.1배를 크게 넘어섰다. 향후 1년간 예상되는 기업들 영업이익 개선세보다 주가 상승세가 가팔랐다는 뜻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글로벌 대부분 지역의 12개월 선행 PER은 3년 평균의 +2 표준편차를 상회하고, 코스피도 13배에 근접했다"면서 "더 강한 기대가 유입되지 않는 한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상대강도지수(RSI)는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70 이상을 유지해 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대강도지수는 70을 넘을 경우 과매수를 의미한다.

올해 코스피 상대강도지수가 70을 넘긴 경우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로, 당시 코스피는 고점 대비 최대 7.5%, 6.7% 각각 조정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과열 신호에 청와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책 당국자들도 연달아 주의 발언을 내놓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13일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불안정한 버블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6일 "증시 과열을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유동자금이 증시에 많이 쏠리고 있어 조정시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국내 주가 상승세는 향후 코로나 19 확산세 완화, 그에 따른 국내외 경제 회복,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가 반영됐다"면서도 "자산시장 이상과열 가능성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탄탄한 매수 여력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업 실적 개선 전망과 외국인 및 국내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탄탄해 과격하 조정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이번 주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영국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다가 내년으로 전망되던 미국 경기 부

양법안 합의도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는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매수 여력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올해 누적 23.3조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어 추가 자금 유입 여지가 크고, 개인 투자자 예탁금 또한 11월 65.1조원까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6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서정훈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기술적인 통계 부분에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정의 당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탄탄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도 "통계적으로 과열 수준은 맞지만, 반드시 조정의 선행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연말 경기 기대 편향도 코스피가 갑자기 밀리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 선호를 지지하고 있는 두 축인 코로나 19 백신과 미국 추가 부양책 중의 하나가 흔들리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 19 백신의 경우 영국에서 지난 8일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이후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면서 백신 상용화 불확실성을 높이기도 했다.

서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던 와중에 백신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초점)-거래소, RFR 선물 내년 하반기 상장 준비..CD 선물 선례 반복 피할 수 있을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국채·통안채 담보 환매 조건부채권(RP) 금리가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이하 RFR)로 최종 선정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RFR 선물의 내년 하반기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FR의 시장 안착을 위해선 관련 파생상품이 적절하게 개발돼 거래돼야 하는 만큼 RFR 선물의 성공여부가 중요하다고 시장 참가자들은 지적한다.

다만 RP 금리의 한계를 감안할 때 RFR 선물이 지난 2007년 상장폐지된 양도성예금증서(CD) 선물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거래소 "RFR 선물 내년 상반기 상장 준비"..기대와 우려

8일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에 RFR 선물을 상장하려고 준비해 왔다"며 "RFR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선물이 잘 거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RFR 결정이 지연되면서 선물 상장 일정도 약간 조정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RFR 선물은 미국의 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선물을 기반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SOFR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오버나잇 금리다. 다만 국내 RP 금리와 마찬가지로 30일, 60일, 90일짜리 기간 구조가 없기 때문에 오버나잇 금리를 복리 계산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국내 RFR 선물 역시 오버나잇 RP 금리를 기반으로 3개월 평균금리를 산정해 만들어질 전망이다. RP 금리가 RFR로 선정된다고 해도 당장 30일물, 90일물 등 기간물이 마련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RFR 선물이 시장 참가자들의 선택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냐다.

일부에선 CD 선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D 선물은 지난 1999년 4월 상장됐지만 거래 부진이 길어지면서 2007년 12월 상장폐지됐다. 3개월 만기에 대표성을 지닌 채권금리가 없는 상황에서 헤지의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은 CD 선물과 RFR 선물 모두 가진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A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미국 시장의 경우 만기 1년 이하인 단기 증권(Bill)의 유통량이 많고 대표성

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물의 활용도가 있다"며 "RP 금리의 경우 3개월 만기에서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통안채도 3개월물은 거래가 안 돼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3개월짜리다 보니 10bp 움직여도 100억원당 100만원~150만원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채권 쪽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FR 선물 안착, 스왑 딜러 선택에 달려..CD 금리와 병행 변수

이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은 상품 특성상 RFR 선물의 안착은 결국 스왑 딜러들의 유용성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자율 스왑(IRS) 딜러들이 픽싱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RFR 선물을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가 성패를 좌우하리라는 진단이다.

다만 픽싱 리스크는 통상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정책 전환기에 두드러지는 만큼 장기간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경우 RFR 선물의 사용 유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B 증권사 FICC 팀장은 "RFR 선물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펙 거래나 헤지 수요가 그만큼 필요하다"며 "오버나잇 금리는 결국 한은 기준금리에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RFR 선물 시장이 움직이려면 정책금리 변화 기대가 반드시 필요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기금(Fed Fund) 선물 가격을 봐도 작년과 올해 초까지 액티브하게 움직이다 최근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정책금리 변동이 없는 시점에 RFR 선물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FR 선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RFR 연동 변동금리부채권(FRN)과 대출 등 관련 파생상품의 지속적인 개발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 금융당국의 계획대로 RFR이 CD와 병행해 사용될 경우 활용도 제고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C 은행 스왑 딜러는 "결국 RFR 선물이 활성화되려면 관련 파생상품과 채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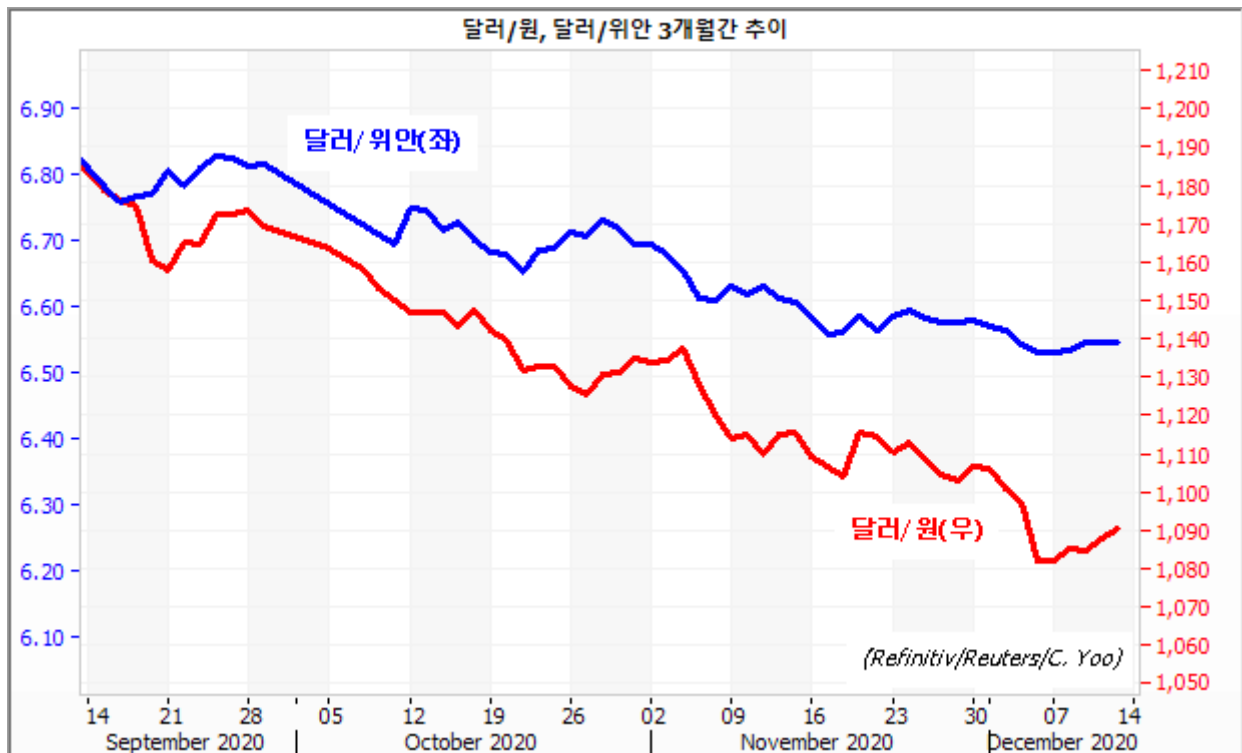
며 "RFR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IS), FRN 을 만들고 CD 와의 베이스 스왑 등이 활발히 거래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대체 지표 개발 추진단에서 관련 논의는 하겠지만 상품을 만든다고 해도 누가 총대를 메느냐의 문제가 생긴다"며 "CD 금리가 존재하는 한 누구도 먼저 나서서 RFR 관련 상품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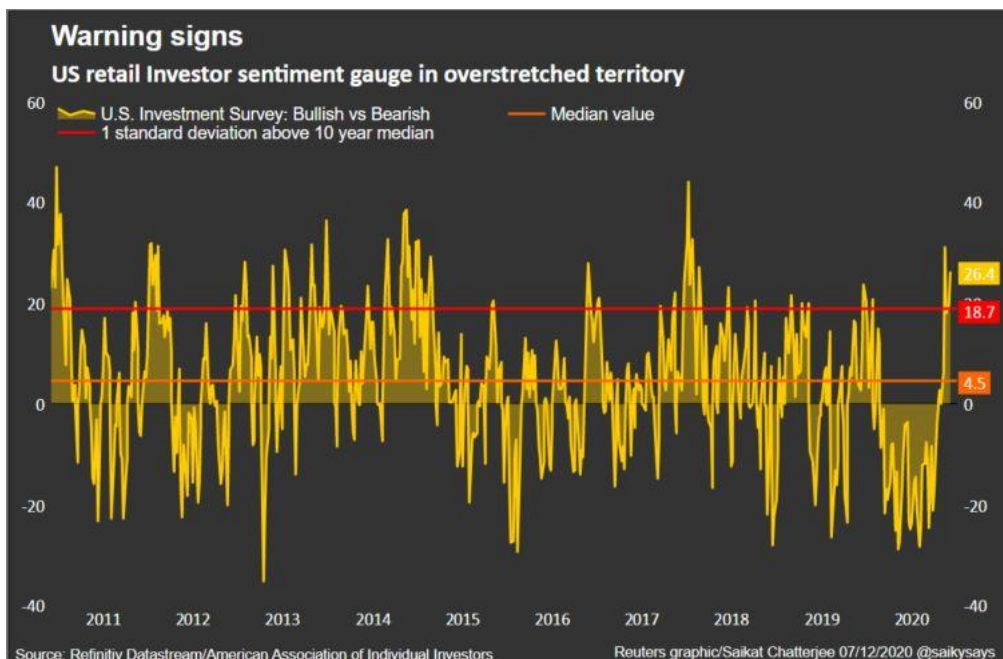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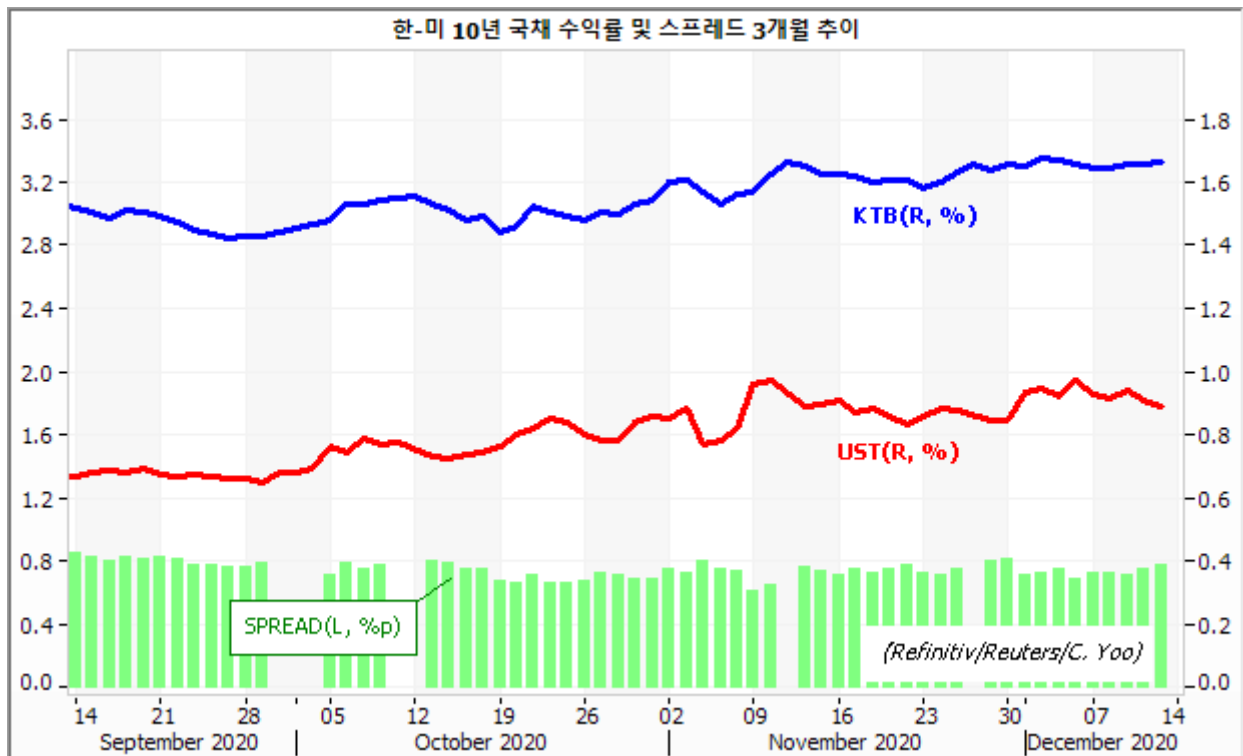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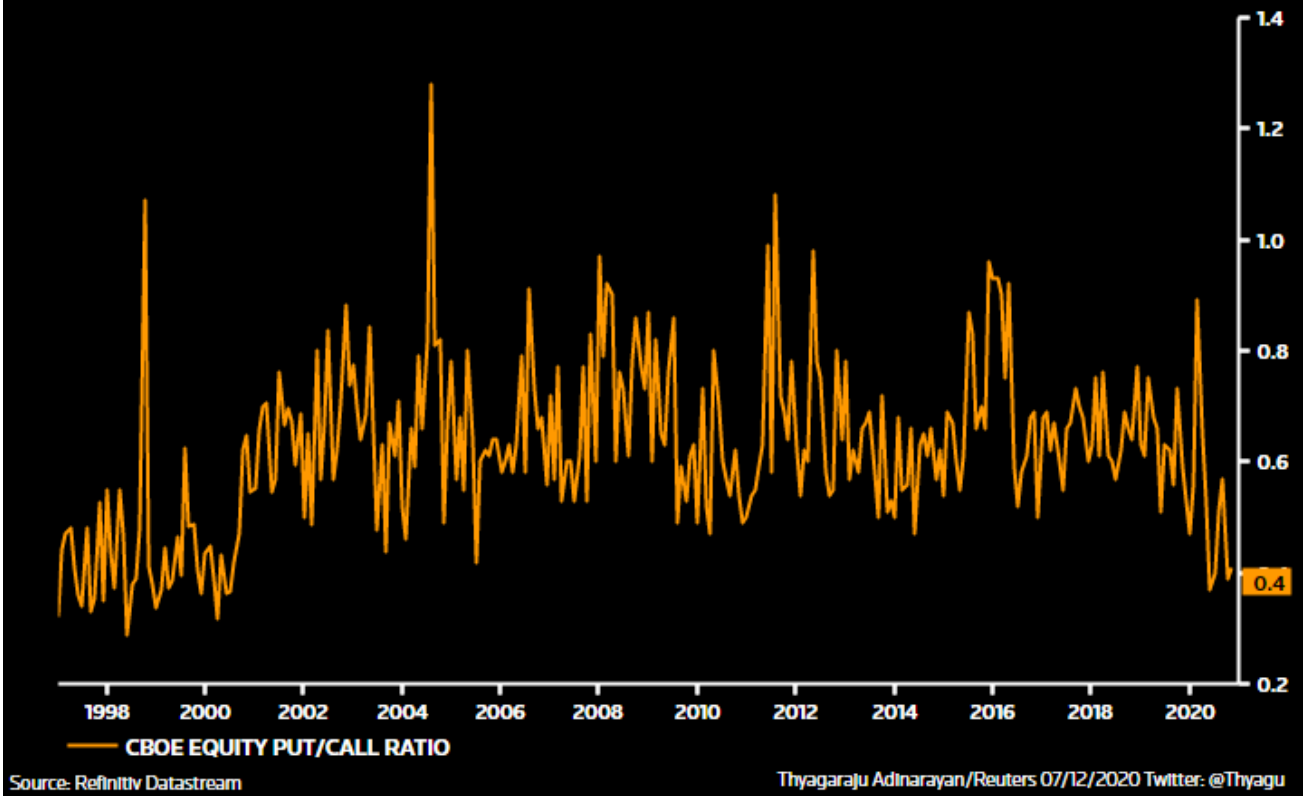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Put-to-call ratio at 20-year low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P 500, STOXX and Nikkei near overbought levels

Relative strength index (14-day)

— S&P 500

— STOXX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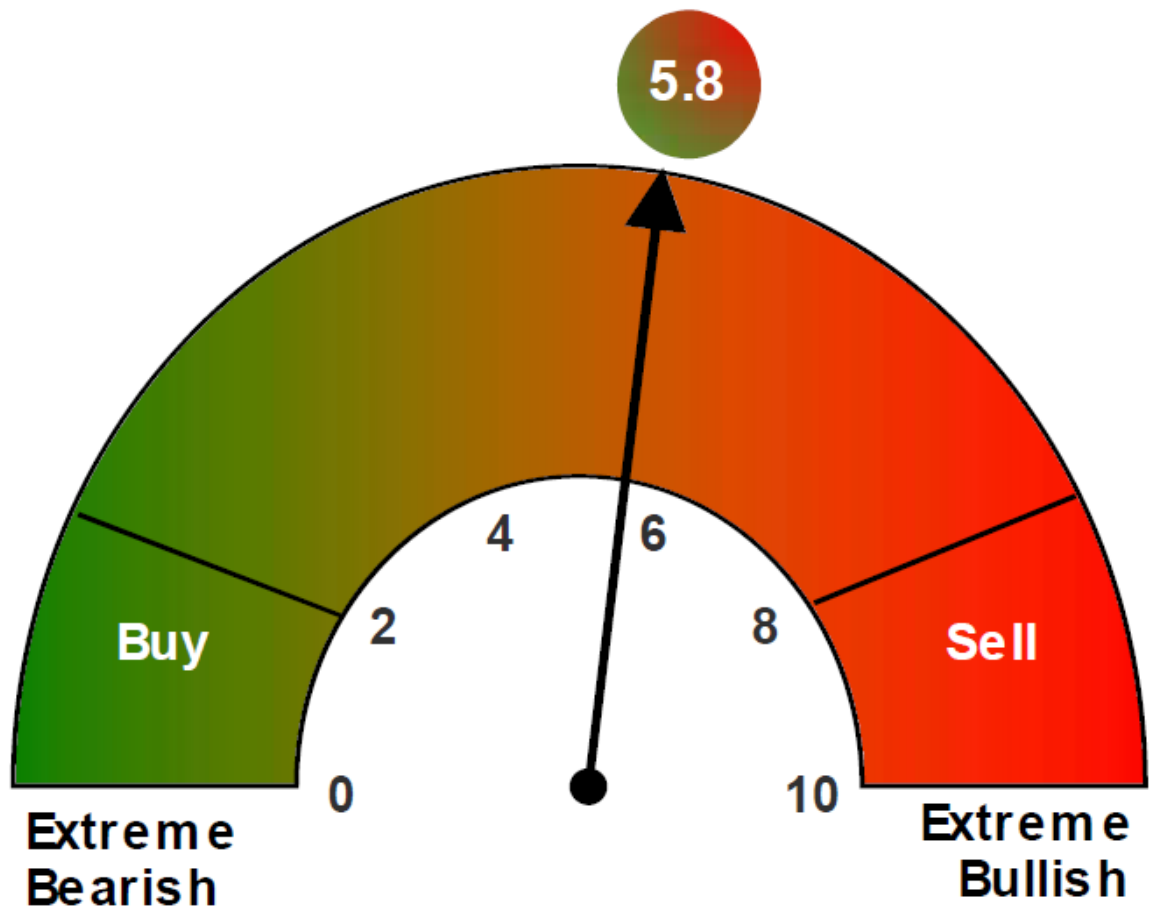
— Nikkei 225



Source: Refinitiv Datastream

Thyagaraju Adinarayan/Reuters 07/12/2020 Twitter: @thyagu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Source: BofA Global Investment Strategy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2009 vs. 2020: S&P 500 deja vu moment!

2009 March lows to December end versus 2020 March lows to date comparison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